

새싹포커지 4월호

우송대학교 유아교육과 새싹포커지 2013년 04월호

지금 유아교육과에서는!

새내기 콘테스트



새내기 콘테스트 무대에 선 손지원 · 최의정 학생

우송대학교 새내기들만의 잔치로 새내기들의 숨겨진 장기를 볼 수 있는 새내기 콘테스트 본선이 4월 3일 6시 우송예술회관에서 진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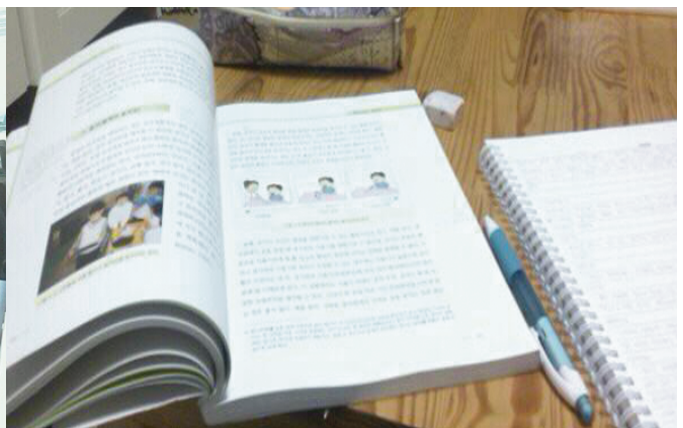
미리 치러진 예선에서 32팀의 노래 참가팀 중 유아교육과는 본선에 올라가는 7개의 팀에 속했다. 이승철의 '말리꽃'이라는 곡으로 손지원 학생과 최의정 학생이 참가해 본선의 첫 무대를 장식했는데 열심히 응원하던 친구들은 "목소리가 맑고 노래와 잘 어울리며 의정이는 빛꽃, 지원이는 개나리와 같이 예쁘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아쉽게도 상은 받지 못했지만 손지원 학생과 최의정 학생은 "큰 무대에서 노래를 불러보니 무척 떨리기도 했지만, 우리를 응원해주고 있는 많은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노래하는 동안 편안했고 잊지 못할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서 좋았다."라고 말하며 새내기 콘테스트에 대한 소감을 전했다.

Midterm Tests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2학년 김용미 · 최지혜 학생
Midterm Tests was from April nineteen to April twenty sixth. The students felt the tension in class. The students from the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studied very hard. Some students went to the library friends.



유아과학교육을 공부한 3학년 김이슬 학생
Other students studied at home. After the mid term tests, the students were very happy. Last week end, I am sure many students wanted a movie or visited their families.

 **도전 릴레이**

미술심리치료 상담사



2-A 박인혜

저는 유아교육과 학생으로서, 유용한 자격증이 무엇이 있을까 알아보던 중에 우연히 미술심리치료 상담사 자격증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미술심리치료 상담사란 미술이라는 매체를 통해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힘들어하는 부분들을 해결해주는 사람입니다. 유아부터 성인까지 골고

는 부분들을 해결해주는 사람입니다. 유아부터 성인까지 골고루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이것을 배워 놓으면 유치원에서 조형 활동을 할 때 유아를 더 세심하게 살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롯데백화점 문화센터에서 열리는 수업에 참가하였습니다. 생각보다 다양한 나이의 사람들이 있어 놀랐습니다. 강사님은 한남대학교 심리치료 학과 교수님이셨

습니다. 첫날엔, 자기소개와 강의를 듣게 된 계기 말하기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 날부터는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갔고, 자신의 심리상태를 나타낼 수 있는 그림을 그리며 분석해 주시며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셨습니다. 또 이론수업 땀, 교육과정을 통해 프로이드와 비고스키 같은 학자들이 나와 흥미있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아무런 주제 없이 잡지와 5절지로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는 활동이었습니다. 제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을 가장 뚜렷하게 비교해 볼 수 있는 활동이었습니다.

활동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것은 제 태도의 변화입니다. 처음 자기소개를 할 때만 해도 소극적으로 참여하던 제가 제 생각을 표현하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었습니다. 또 여러 사람의 작품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의 심리와 관련된 그림들도 알게 되었고 더불어 저의 심리도 알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공정무역**

함께하는 세계화를 위한 소리, 울림

항상 우리 사회는 양면성에 대해 고민한다. 양념 치킨이나, 프라이드 치킨이나? 혹은 짬뽕이나, 짜장이나? 이러한 양면성을 보완해주기 위해 양념 반 프라이드 반이 생겨났고 짬짜면이 생겨났다. 우리 사회에도 이런 상황을 찾아볼 수 있다. 발전이나, 보존이나? 그 중점을 찾은 것이 바로 지속가능발전이다,

지속가능발전은 미래 세대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발전을 의미한다. 지속가능발전교육(Educational for sustainable development:ESD)은 모든 사람이 질 높은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와 사회변혁을 위해 필요한 가치,행동, 삶의 방식을 배울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하는 교육이다.

ESD의 사례로 공정무역이 있다. 공정무역이란 특히 제 3세계의 소외된 생산자와 노동자에게 더 좋은 무역 조건을 제공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개념이다.. 공정무역 연합은 개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직

접 원조를 하여 생산자를 지원하고 공정무역 인식을 증진하고 기존 국제 무역의 규정과 관례의 변화를 위한 캠페인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공정무역 연합은 공정한 무역 거래를 위해 10가지 기준을 규정하여 원조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다. 공정무역 연합은 경제적으로 불리한 생산자들에게 금전적 원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제공하고 역량을 강화하며 공정한 가격을 지급하고 작업 환경의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또한 공정무역을 통해 거래되는 상품들의 가치와 투명성에도 최선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공정무역 연합을 통해 구매한 상품에 있는 특정 마크가 공정한 대가를 지급한 제품이다. 이는 선진국 위주의 세계화가 아닌 함께하는 세계화를 위한 발걸음 중 하나이다. 식품뿐 아니라 수제 문구류나 패션류 등 다양한 제품이 있다. 이 제품들은 온라인상에서 울림이라는 사이트를 통해 구매할 수 있으며 서울 종로구 안국역 1번 출구에 오프라인 매장도 있다. 여러분도 함께하는 세계화를 위한 소리에 귀 기울여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혜나눔 프로젝트

가능성을 찾아서



미셸의 손을 사하이 선생님 자신의 입에 가져와 입모양을 느낄 수 있게 하는 모습

블랙은 시각장애와 청각장애를 복합적으로 가진 미셸과 미셸을 치료해주시는 사하이 선생님과 이야기이다. 사하이 선생님은 말을 가르칠 때 미셸의 손을 자신의 입술에 가져와 입 모양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미셸은 대학에 합격하였고 수업시간에 사하이 선생님의 도움을 받으며 공부한다. 미셸은 자꾸 떨어지는 시험을 포기하고 싶었지만, 선생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뒤 떠나신다. 미셸은 대학을 20년 만에 졸업하여 선생님을 찾아간다. 선생님께서는 이미 알츠하이머로 모든 기억을 잃으신 상태이셨다. 하지만 미셸을 보시고는 눈물을 흘리시며 미셸이 처음 말했던 단어인 'Water'라는 말을 하셨다. 미셸과 사하이 선생님은 서로 바라보며 열린 결말로 영화를 마무리 짓는다.

영화 '블랙'을 통해서 무엇인가 꿈꾸고 있는 대학생으로서 배울 수 있는 점과 미래 유치원 교사로서 배울 수 있는 점이 있다.

사하이 선생님은 미셸에게 '불가능'이라는 단



기억을 잃으신 사하이 선생님께서 미셸이 처음 말했던 'water' 라고 말을 하시는 모습을 끝까지 가르치지 않으시고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신다. 대학생으로서 자신이 이루고 싶은 것이 많지만 할 수 없을 것 같은 걱정에도 도전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사하이 선생님의 말씀처럼 뭐든지 불가능한 일은 없을 것이다. 자신을 믿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느끼고 원하는 것을 위해 도전하고 노력한다면 결국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룰 것이다.

유아교육현장에서 특수교육이 필요한 아이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런 아이들을 만나기 이전에 우리의 인식부터가 변해야 할 것이다. 남다른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여 그들의 행동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도와야 할 것이다. 우리의 인식과 태도가 변해야 우리를 보고 배우는 아이들 또한 편견 없는 세상을 만들어 갈 것이다.

영화 '블랙'을 통해 대학생으로서, 실습생으로서, 앞으로 교사로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쉬어가기 - 동시

봄이 왔대요.

앞 담 밑에 개나리
방긋방긋 봄이 왔대요.
꽃잎 위에 호랑나비
봄이 왔대요.
앞마당에 병아리
봄이 왔대요.
개울가에 개구리
봄이 왔대요.



노랑나비

나비 나비 나비 노랑나비
꽃잎에서 한잠 자고
나비 나비 나비 노랑나비
소꿉에서 한잠 자고
나비 나비 나비 노랑나비
길손따라 훨훨 갔네.





우송유치원 소식

씨앗심기



과학 영역에 놓여진 씨앗과 돋보기

우송유치원에서는 4월 5일 식목일을 맞이하여 만4, 5세 유아들의 꽃씨 심기가 진행되었다.

이번 활동은 우송대학교 유아교육과 학생들이 플라스틱 컵을 재활용하여 화분을 만들었던 것을 도입으로 활용하였다. 유아들도 솔파인 베이커리에서 직접 컵을 주워서 꾸미며, 자신만의 화분을



자신이 꾸민 화분에 심은 씨앗

만들었다. 화분을 만들고 난 후 봉선화·분꽃·해바라기의 씨앗들을 관찰하고, 마음에 드는 씨앗을 골라 화분에 심었다. 화분 만들기·씨앗 고르기·화분에 물주기 등 유아들 스스로 만들고 관찰할 수 있는 유아 주도적인 활동이었다.

산책하기



자연의 아름다움을 감상하고 있는 유아들의 모습

우송유치원 유아들은 4월부터 봄의 변화를 느끼기 위해, 우송대학교 우송관과 가정관 등 유치원 가까운 곳에 산책하며 새싹이나 꽃을 관찰했다. 4월 17일 수요일에는 만 3세 유아들이 우암 사적공원으로 산책을 다녀왔다. 유치원 주변에서 보던 꽃들 외에 다양한 식물을 관찰하면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감상하였다. 넓은 들판에서 간식을 먹고, 게임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유치원에 돌아와서는 수집한 자연물을 자세히 관찰하고 블록으로 산책지를 만들어 나들이 가는 놀이로 확장하기도 했다.

만드는 사람들

담당교수 : 성원경 교수님

학 생 : 김진희

김민아 이다영 이정현 조예슬

김예솔 김유리 김지운

박지원 손혜원 박명옥

